

광주 제조업체 47% “中 리스크 걱정된다”

위안화 절하·소비시장 둔화·기술경쟁력 강화 영향

“시장 개척·환리스크관리·FTA 활용 지원을”

기계부품을 생산해 중국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한 수입규제로 수출에 이상기류가 감지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기업의 저가공세도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신제품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해외 입찰에 참여해보고, 인도나 중동지역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접이 안온다.

광주 지역 제조업의 불안감이 가중되

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성장세 둔화와 지급률 향상 등 이른바 ‘중국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14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중국리스크와 관련 ‘현재는 부정적 영향은 없으나 향후 우려된다’는 의견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영향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23.9%에 그쳤다.

중국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

국의 소비시장 둔화’(34.3%), ‘중국 기술경쟁력 강화’(32.4%), ‘위안화 절하로 인한 환율 변동’(22.9%) 등을 꼽았다.

지역 기업들이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45.5%가 ‘수출경쟁력 향상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24.2%), ‘환리스크 관리’(21.2%),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7.1%)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대외변수로 ‘중국 등 교역시장 둔화’(19.9%)를 꼽았으며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4분기 경기 3분기와 다를 바 없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은영 광주상의 기획진흥부 과장은 “중국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

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침체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과 대중국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기업을 모니터링 결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물류비 지원, 국제규격인 및 지적재산권 유지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기술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개발국의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이와 관련 중국 경제부진으로 중국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지역 기업에 대해 사업 청산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난해 이상용 세방그룹 회장(오른쪽)이 서울 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제7기 희망스위치ON’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세방그룹 제공)

‘사랑의 배터리’ 세방그룹

올 11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8년간 75곳 지원

‘로켓배터리’로 알려진 세방그룹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어 화제다. 특히 2008년 세방이순재재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희망 스위치 ON’ 사업을 통해 펼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방그룹은 올해 10월 현재 전국 11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75개 지역아동센터가 희망 스위치 ON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해 안전한 아이들의 쉼터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창립주 이의순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순재재단은 시설 교육기관에 위탁하기 힘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과 급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자금에 없어 지속적인 유지·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희망 스위치 ON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방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망스위치 ON 같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75개 지역아동센터가 희망 스위치 ON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해 안전한 아이들의 쉼터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산업전시회’ 3200억 수출상담

222개 업체·기관 참여...1만6000명 찾아 성황

‘세계 빛의 해’를 맞아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2015IOCTO)’와 함께한 ‘2015국제광산업전시회’가 9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동부라이텍, LG이노텍, 한국전력, SKT 등 국내 LED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글로벌광통신, 오이솔루션 등 국내·외 광관련 222개 업체·기관(369개 부스)이 참여, 세계 광산업체와 광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전시회 사흘간 관람객만 1만6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남미를 비롯한 27개국에서 광관련 바이어 196명이 참가해 국내 광통신 및 LED 조명업체들과 670여건의 상담을 펼친 결과, 3200억원의 수출상담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목을 끌었던 OLED테마관은 일본 아마카타 ROEL연구센터 등이 참여해 일본OLED선도기업과 국내 광산업체 간의 기술협업이 논의됐으며 미래 조명제품의 신모형을 제시하는 등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또한 미디어 아트 LED&OLED융합전, 드론비행전국대회,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전시장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하이트진로 ‘소주 韓流’

소주 현지화...동남아 마케팅 강화
올 상반기 실적 전년보다 84% ↑

하이트진로가 소주의 현지화 전략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11일 하이트진로는 최근 동남아에 부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태국에서 최대주주 기업인 ‘분릿그룹’과의 제휴로 소주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참이슬 Classic, 진로 24, 자몽에이슬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진로 24는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현지 판매용 소주다.

한국에서도 인기있는 자몽에이슬은 지난달 태국에 첫 상륙해 판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한국 주류의 서브개념이 아니라 고유의 소주 카테고리 새로 만들어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10000

‘삼성 애드워시 세탁기’ 10000대 돌파

삼성전자 모델들이 출시 6주 만에 국내 판매 1만대를 돌파한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드럼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버블샷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도어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채용해 언제든 세탁물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주택대출 분할상환시 LTV·DTI 재산정 면제

다음달부터 시행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대출로 빚 갚는 방법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지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 상품을 거지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지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지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9	10	13	31	35	2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722,322,844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698,929				48
3	5개 숫자일치	1,395,697				1,778
4	4개 숫자일치	50,000				90,364
5	3개 숫자일치	5,000				1,519,963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1-607-5330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만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포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www.dvvc.co.kr

NAVER 물관리자동화, D+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